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이석형 함평군수

"나비·곤충엑스포 성공 개최 최선"

이석형 함평군수에게 무자년 새해는 그 어느해보다 의미가 남다르다.

오는 4월 개막되는 '2008 세계나비·곤충 엑스포 성공 개최'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500여 공직자들과 4만 군민이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친환경 한우촌 조성

이 군수는 9년 연속 나비축제를 성공시킨 자신감을 바탕으로 나비·곤충 엑스포를 통해 생태 체험관광의 진면목을 보여 주겠다는 각오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로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려는 시도는 올해도 함평군의 중점 시책으로 추진된다.

친환경농업 실천단지 규모를 4천500ha로 늘리고 함평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통합 RPC(미곡종합처리장)의 품질관리도 강화된다.

특히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함평천지 한우의 명품 브랜드화 사업 확대를 위해 한우 특구지정, 친환경 한우촌 조성과 양질의 조사료 공급을 위한 청보리 재배면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대한민국 난 명품대전을 비롯해 돌머리 갯벌체험, 꽃무릇축제, 국향대전 등 사계절 테마가 있는 관광 프로그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군립미술관 건립과 대동제 상류와 사포관광지 개발, 양서·파충류 생태공원 조성으로 '관광함평'의 명성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실버 일자리 확대

이 군수는 "전국 최장수 군의 이미지에 걸맞게 실버 일자리 확대 및 전문요양시설 신축 추진과 자립 자활할 수 있는 장애인 희망일터를 조성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통한 쾌적한 정주여건과 산업단지 조성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지역 현안이다. 올해 국도 24호선을 확장해 엑스포 성공개최의 토대를 마련하고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의 함평천 복원사업이 본격화된다.

또한 월야 지방산업단지를 반드시 유치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로 1·2·3차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함평천지 건설에도 앞장서고 있다.

외국어 타운 연내 설치

이밖에 새로운 변화와 수요에 걸맞게 행정조직을 개편, 군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계화 추세에 따라 군민과 학생, 공무원들이 상시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외국어 타운을 연내 설치할 계획이다.

이 군수는 "타 지역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지역간, 계층간, 상하간 반목과 분열을 떨쳐내고 군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평발전에 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버섯재배 하우스 눈 피해 복구 담양소방서(서장 천성수) 삼계 119 안전센터는 6일 폭설 피해를 입은 장성군 삼계면 수산리 버섯재배 하우스에서 복구 활동을 벌였다. 이날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60여 명은 무너진 비닐하우스를 제거하고 철재를 바로 세웠다. 〈담양소방서 제공〉

나주시 45개 기업·5천억 투자 유치

지난해, 신규 기업만 32개 … 1천여명 고용 창출

나주시가 지난해 45개 기업을 유치해 5천141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이는 지난 2006년 30개 기업, 2천708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32개 신규 기업을 유치해 667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으며 기존 입주기업 13개사도 1천601억원을 투자, 450명을 추가로 고용했다.

대표적 투자기업으로는 남양유업 나주공장이 금천면에 생산 공장을 신설하고 이달 중 100여명의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또 한국쓰리엠 나주공장은 문평 농공단지 2만5천여㎡를 분양받아 설비증설에 나서며 100석 규모 콜센터 유치에 이어 연내 200석으로의 확장이 검토되고 있다.

김도인 나주시 투자유치 팀장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미래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등 투자유치에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투자기업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강화한 것이 결실을 거둔 것 같다"고 밝혔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채석 허가 기간 연장 불허 타당"

법원, 담양군 승소 판결

행정심판에서도 승소

담양군이 채석기간 연장과 관련, 해당 업체와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담양군은 "대덕면 용대리 산 152-6 일대의 채석허가와 관련, B사가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채석허가기간 연장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 대해 최근 광주지법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광주지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석재의 채취에 착수하지 않거나 1년이상 중단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앞서 담양군은 지난해 11월 열린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에서도 승소했다.

1989년 4월부터 대덕면 용대리 일대에서 골재채취를 해 온 B사는 지난해 2월 허가기간이 만료되자 5년간 기간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담양군은 "18년간의 허가기간에도 채석을 마무리 하지 못한 원인이 해당 업체에 있고, 소음·분진 등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가 크다"는 이유로 허가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담양=장필수기자 bungy@

■ 새얼굴

"혁신도시 건설에 역량 다 쏟겠다"

윤광수 나주 부시장

"혁신도시와 역사·문화관광도시 건설에 모든 역량을 다 쏟겠습니다."

신임 윤광수(49) 나주 부시장은 "동료공직자 여러분과 시민들의 지혜를 한데 모아 살기 좋은 나주 건설에 열정을 바치겠다"고 말했다.

해남 출신인 윤 부시장은 목포고와 육군사관학교를 거쳐 1988년 행정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 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과 체육청소년과장, 경제통상과장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김경이(48)씨와 2남, 취미는 독서와 등산.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납세자 섬기는 자세로 일하겠다"

박득용 해남 세무서장

"납세자를 '섬기는 자세'로 세정을 이끌겠습니다."

신임 박득용(55) 해남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2년 9급 공채로 공직에 첫 발을 내디딘 박 세무서장은 재무부 세제실 등을 거쳐 경인청 부동산조사 담당관, 본청 재산세과 양도소득세 계장, 서울청 개인납세 1과 부가 1계장을 지냈다.

전북 익산 출신으로 이리상고와 경기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가족으로는 부인 민경숙씨와 1남 1녀, 취미는 등산.

/해남=박진표기자 lucky@

2008년 영농설계교육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형)가 7일부터 군내 친환경농업인과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2008년 영농설계교육에 들어간다.

오는 15일까지 군 농기센터에서 실시되는 영농교육은 군내 농업인과 농촌여성 등 1천200명을 대상으로 식량작물 위주의 친환경작물재배반과 농촌생활지원반 등 2개 과정이 운영된다. 또 오는 3월부터는 소득 작목과 품목별 교육도 추가로 운영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강진농기센터(061-430-3671)나 각 읍·면 사무소로 하면 된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전국 최초 토지현황 조사시스템 구축

광산구, 지방세정 '우수'

광산구가 행정자치부 주관 '2007 지방세정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산구는 지난해 아시아나 소속 항공기 2대의 정치장을 광주공항에 유치, 1억2천만원의 지방세를 확보했다. 또 전국 최초로 최첨단 토지현황 조사시스템을 구축했고 탈루은닉 세원발굴과 체납세 징수활동 등 적극적인 세정업무를 펼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국 246개 자치단체 가운데 우수기관에 뽑힌 곳은 광산구를 비롯한 13개 기관으로 구는 5천만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광산구는 지난해 상반기 광주광역시 세정평가에서도 장려상과 5천만원의 상사업비를 받는 등 세정업무 전반에 걸쳐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광산구 관계자는 "올해도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 세수 증대 뿐 아니라 납세자 편익 서비스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